



“받아라”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삼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대 콜롬비아의 경기, 대한민국 손흥민이 슛을 시도하고 있다.

순창 전국정구대회 흥행 성공

154개팀 1500여명 선수단 참가
순창지역 엘리트·동호인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순창에서 열린 대한정구협회장기 전국정구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 엘리트·동호인부 선수들이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에서 모인 154개팀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시즌 첫 대인 제40회 대한정구협회장기 전국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대한정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순창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 일간의 일정으로 초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동호인부로 나누어 남녀 단체전, 남녀 개인전(단식·복식), 혼합복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초전으로 시·도팀 간의 전력 분석을 위해 당초 예상인원을 뛰어 넘는 선수단이 참가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순창지역 골목상권은 8일동안 1,500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진들로 붐볐고, 지역 상권에는 활기가 돌았다. 또 이번 대회에서 순창지역 엘리트(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와 동호인부가 최고의 성적을 내며 순창군이 정구 메카임을 입증했다. 초등부에서는 순창초등학교 남자팀(지도자 김육남)이 단체전 우승을, 순창중앙초등학교 여자팀(지도자 김육남)이 개인복식 3위(김민

정, 김호정)를 차지했다. 특히 순창초등학교 남자팀은 지난 1월 제60회 전국유소년 정구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전국 최강팀으로 우뚝 섰다. 중등부에서는 순창중학교(지도자 김기영)가 단체전 준우승, 개인복식 3위(양해창, 김대현)에 올랐으며, 순창여자중학교(지도자 강영순)는 단체전 3위, 개인복식 우승(문선혜, 오은진), 개인단식 3위(문선혜)를 차지했다. 가장 두드러진 성적을 낸 순창제일고는 남자팀(지도자 전병상)이 단체전 우승, 개인복식 우승(서범규, 김민중), 개인단식 3위(서범규)로

서범규 선수가 3관왕을 차지했다. 또 여자팀(지도자 조기종)은 개인복식 3위(박지현, 채유진)로 입상했다. 일반부는 순창군청 정구단(감독 홍정현)이 아쉽게 개인복식에서 3위(김선근, 김병국 선수)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순창에 유일한 동호인 정구클럽(회장 설창호)인 화이트볼정구클럽이 30~40대 동호인부 개인복식 우승(윤기천, 민진훈)과 남자 신인부 개인복식 3위(강성희, 양동선)에 입상했다. 순창군은 모든 부문에서 입상하며, 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마추어 축구리그 출범식

광역 K5·시도 K6·시군구 K7... 콜롬비아전 하프타임에 개최
내달부터 11월까지... 리그 하나당 최대 10개 팀 구성 우승팀 가려



대한축구협회(KFA)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 친선경기 하프타임에 아마추어 리그인 K5, K6, K7리그 출범식을 개최했다. K5, K6, K7리그는 동호인 축구와 전문 축구의 균형 발전 및 한국 축구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리그다. 2017년 7부리그에 해당하는 디비전 7(시군구 리그)이 출범했고, 디비전 7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이 참가하는 디비전 6(시도 리그)가 2018년 시작했다. 나아가 올해는 디비전 5(광역리그)가 출범한다. 이와 동시에 KFA는 K1~K4리그와 통일감 및 연계성을 추구하고자 명칭을 K5(광역), K6(시도), K7(시군구)로 변경했다. KFA는 2023년까지 1부리그에서 7부리그에 이르는 디비전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현재 K7리그는 전국 164개 시군구에서 1002개 팀, K6리그는 전국 30개 시도에서 190개 팀, K5리그는 11개 리그에서 67개 팀이 참가한다. 리그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6~10개 팀이 하나의 리그를 구성해 5라운드 혹은 9라운드로 우승팀을 가린다. 리그별 상위팀

은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된다.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콜롬비아전 하프타임에는 한국축구 승강제 구축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이 그라운드에 준비된 피라미드 구조물에 K5, K6, K7 엠블럼을 부착한 뒤 해당리그의 엠블럼 통칭이 차례대로 펼쳐졌다. 한편 KFA는 콜롬비아전이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시도 및 시군구 협회장을 초청, KFA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뉴시스

여자농구 신한은행 “10배수 감독후보 검증 철저”

농구협회 국대 감독후보자
심사평가표 일부 활용기로



감독 선임 문제로 진통을 겪은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이 우수 감독 선임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기존의 감독 선임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다각도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경력을 철저히 검증, 10배수 이상의 후보를 선발한 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면접대상자를 선발한다. 인사검증 과정에는 대한민국 농구협회 국가대표 감독후보자 심사평가표를 일부 활용할 예정이다. 1차 실무진 면접, 2차 임원진 면접을 거쳐 구단주가 최종 결정한다. 또 선수단과 소통을 위해 최초 후보군 및 1차 면접대상자 선정 과정에 선수 대표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1일 박성배 전 우 리은행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하고, 그의 동생인 박성훈 코치를 임명하며 새 시즌을 준비했다. 그러나 박 감독과 박 코치가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1주 만에 사퇴, 감독 자리가

비었다. 당시 신한은행은 “선임과정에서 인사검증이 철저하지 못했다. 다각적이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재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 측은 “팀을 리빌딩해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신임 감독을 영입하고 선수들의 체력 강화, 재활 훈련, 치료 등을 담당할 트레이너를 비롯해 매니저, 통역 등 지원 스태프들도 공모 방식으로 투명하게 영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만족도를 동시에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개선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감독을 선임하고 팀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